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핵심 구절: "그때 모든 백성이 큰 소리를 지르며
주님을 찬양하니, 이는 주님의 성전의 기초가 놓였기
때문이었다."

에스라 3:11

선택한 성구:

에스라 3:1-6,10-13

에스라서에 기록된 사건은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70년의
세월이 끝날 무렵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 천하를 주셨다고
선언하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임명했습니다. 그 결과 고레스는 유대인 포로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에스라 1:1-3

귀환한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릴 제단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귀환 두 번째 해에는 "성전의 기초"가 세워졌습니다.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니 이는
그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영원히 지속됨이라 ... 여호와의 집의 기초가 놓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라 3:2-6,8-11

일부는 기쁨의 소리로, 일부는 울부짖는 소리로
불협화음을 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앞을
내다보는 사람들은 기쁨을 외쳤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솔로몬의 웅장한 성전을 머릿속에
그리는 사람들은 현재의 성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12,13절). 오늘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미래를 위해
기뻐해야 할 때 과거를 그리워하며 울거나 낙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권고는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13). 사실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모든 희망의 결실에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우리는 과거의 죄나 결점으로부터 얻은 교훈, 즉
"주님의 징계"와 그러한 경험을 통해 올바르게
"행사"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5-11). 그러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옹호자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죄를 개인적으로 속죄하신 분"이시므로, 이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애도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모든 흠과 실수를 덮어줍니다. (요한일서 2:1,2;

1:7-10).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 계속 목표를 추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14

에스라서에 기록된 이 장면은 어떤 면에서는 아마겟돈이 끝난 직후 세상에서 일어날 상황과 사건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때 하나님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분께로 향하여 이 땅의 새로운 조건과 마련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모든 인류는 옛날 이스라엘이 영적 성전을 통해 주님께 다가갔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 다가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1-4

이 땅의 인류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선하심과 자비, 사랑에 대해 찬양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시편 136:1).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의 집 산이 지상에서 가장 높은 곳, 즉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다른 언덕들보다 더 높이 올라갈 것이며, 전 세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를 위해 그곳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하길, 주님의 산 ,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고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우리는 그분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여호와와의
가르침이 시온에서 나오고 그분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2-4